

# 우리 수경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추천인 - 김도윤 /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사

씩씩한 개구쟁이 수경이가 삼성서울병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자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13살이 된 수경이는 조금씩이지만 스스로 당뇨관리를 잘 하게 되었고 덕분에 수경이 어머니의 걱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식사관리, 운동관리에 가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는 건 여전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수경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당뇨관리에 열심인 수경이는 사실 소아당뇨를 진단받기 2년 전인 지난 2002년 12월에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식욕이 통제되지 않아 비만, 성장이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여 2004년 1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

습니다만, 2004년 6월에는 “소아당뇨”까지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알게 된 수경이의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안정적이어야 하나, 수경이의 아버님은 지난 1999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당시의 고액의 치료비는 고스란히 부채가 되어 수경이가 진단을 받기 이전에 수경이와 수경이 어머니 단 둘의 가정은 벌써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제의 대상이 되어 생계비 보조와 의료급여 1종 등의 국가지원으로 생활하시던 시기였습니다. 수경이의 아버님 임종 이후 친가와외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라곤 수경이의 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곳곳이 일하시다가 신장 기능 이상으로 몇 년째 혈액투석치료를 받으

시는 수경이 외할아버지,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며 외할아버지를 돌봐 주시는 수경이 외할머니 등 외가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경이는 소아당뇨로 인한 지속적인 생활관리를 해야 하며, 나아가 “프레더윌리 증후군”으로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수경이 어머니는 수경이를 항상 옆에서 돌봐 주시느라 근로활동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수경이와 함께 한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경이가 치료받아야 할, 성장해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수경이의 마음에 희망이 깃들고 수경이의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주실 곳 : 365202-01-072363 (국민은행 / 예금주 : 김선숙(환자 母))

문의 : 02)3410-3257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실 김도윤 사회복지사)

함께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기부를 받습니다.

#### ☐ 기부안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공익성 기부금 손비 인정단체로, 기부해 주시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송금계좌 : 우리은행 195-138439-13-001(예금주: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문의전화 : 02-771-8542

-기부금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관련법규 : 본 협회에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인단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www.dangnyo.or.kr](http://www.dangnyo.or.kr)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모토로 우리나라 400만 당뇨인의 건강,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